

너를 향한 내 뜻 알고
네 인생 정성 들여 만들어라

작성일 : 2011. 07. 22. (금) 오후 12:45
작성자 : 김진미

새벽 제단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낮
12시 예수님께 기도드리기로 정한 시간이 되어 찬
양으로 영광 돌리며 다시금 정성으로 주님 맞을 것
을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말
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나의 섭리의 신부들아.
내 사랑으로 말하니
귀 기울여 들길 바란다.

내 사랑아.
내 사랑으로 낳은 내 사랑들아.
나는 요즘 너희 선생 통해
너희 삶 하나하나 쪼개어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 내 손길 외면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나 예수는 너희 인생 각각에게
기대하고 뜻한 바들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뜻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니
큰 뜻 품고 그 뜻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기 바란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각각의 조건과 수준대로
현재와 미래에 둔 뜻이 있으니
먼저 너를 향한 내 뜻을 발견하길 바란다.

나 예수의 입장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고
너희 입장에서는
내 뜻 안에 너희가 가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
다.

정확한 목표를 알고 정했으면

반드시 그 뜻 이루기 위해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행함의 방향은
매주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또 너희가 깊은 기도했을 때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너희에게 감동으로 말해 준다.

절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준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여라.
너희의 운명이 달린 말이다.

나의 말을 소홀히 하여
내가 큰 뜻을 둔 자이나 책임분담 못하여
소인배 인생 산 자 많다.
자기 구원 하나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나를 떠난 자 많다.

그러니 섭리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목적 없이 섭리에서 뜬 구름 같이 살지 말고
정확히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알라.

그 뜻 알고 그 뜻 이루기 위해
세밀히 말해 주는 단상 말씀과
너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대로
깊이 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뜻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길 바란다.

모든 일 한 번에 잘 하여야 한다.
내가 말하였을 때 스승과 같이 결단하고
온전히 행하고 정성을 들여
완벽히 너 자신을 변화시켜 보아라.

네 인생에 진정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선생 보아라.
지금도 그 좁은 환경에서도
성삼위께 경배하며 지극 정성을 들인다.
장소와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다.
인류를 구원코자
그 깊은 말씀 받기 위해 정성을 들인다.

너희 선생이라고 쉽게 하는 것 없다.
그 만큼 행하고 그 만큼 정성을 들이기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성삼위께 정성,
기도에 정성,
생각에 정성,
생활과 삶에 정성,
운동하는 데에도 정성,
건강관리 하는 데에도 정성,
말씀을 받는 데에도 정성,
섭리의 모든 행정, 공적인 일에도 정성,
너희 개인에게도 정성...

내 원하는 뜻, 인류 구원을 목표로
어느 하나 정성 없이
건성 건성으로 하는 것 하나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또한 너희를 향한 내 원대한 뜻을 알고
그 뜻 이루기 위해 선생처럼
정성을 삶 살아 보아라.

끊임없이 너 하나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너를 온전히 만들고 다듬어 내 뜻을 이루고
내 온전한 신부되어 나의 나라에 가는 길이니
진정 기쁘고 보람 있지 않냐?
그러니 진정 기쁨으로 소망으로 만들어 보자.

단상의 말씀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
바로 연구하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여 내 심정 받아
세밀히 행할 바를 정하여
빠른 구름 되어 실천해 보아라.

너희가 최고로 빨리 성장되는 방법이다.
선생 삶 따로, 너희 삶 따로가 아니라
선생의 삶을 표본 삼고
너희 모든 삶 바뀌 보아라.

너희 선생이 큰 뜻 이루며 살듯
너희 또한 큰 뜻을 품고

큰 그릇 되어 살기를 바란다.

선생 정신 받고 선생의 실천력 받아
속히 나의 신부로
나와 같이 내 뜻 이를 동력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 너희 인생 시간 잘 써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최우선의 사고를 가지고
내 뜻의 방향으로 속히 행하여
스승과 같이 큰 인생 살기를 바란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은 없고
나의 때가 다 되었는데
온전히 신부 단장된 자가 드물구나.

그러니 속히 너 자신부터
내 말씀으로 정성 들어 만들고
나와 같이 내 육신 되어
이 신부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길 바라노라.

속히 속히 성장하여라.
내 손발 되어 표적 같은 생명의 역사 일으켜 보자.

너희 하나하나 만들기에 달려 있다.
말씀으로 정성 들어 만들고
기도로 정성 들어 내 깊은 사랑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불같은 신부로, 사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속히 너 자신을 온전히 만들라.
온전한 나의 신부만이 내 나라에 갈 수 있고
내 육신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의 뜻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더욱 진리와 사랑으로 너희를 만들어
나와 일체 되자.

사랑한다.
오늘도 너희를 기대하며
정성 들어 너희를 살피는 네 신랑 예수다.
사랑한다.